



海外市場情報

85년의 美 經濟 3~4% 成長

-美FRB, 景氣 후퇴 없이 완만하다-

美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의 그래물리理事는 최근, 85년의 美 經濟 성장률은 3~4%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景氣가 上向되리라는 전망에 충분한 자신이 있다고 밝힌 그는 내년의 경제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率は 4% 전후며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通貨 공급 목표에 관해서는 M1, M2를 2월에 발표한 신장률 목표 범위 내로 억제하여, 景氣 후퇴에 빠지는 일 없이 완만한 成長을 유지할 것이라고 言明, 최근의 金融 완화에 대해서는, M1의 伸張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이 결실을 맺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대하는 財政 赤字에 대해서는 점차 심각성이 증대되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시아諸國, 내년 成長率 둔화

-한국, GNP 7.7%에서 7.4%로 예상-

Asia Wall Street Journal紙가 취재한 아시아各國의 經濟 專門家 5인에 의하면, 東아시아와 東南亞 10國의 85年度 經濟 성장률은 美 經濟의 감속으로 對美 輸出의 신장률이 둔화, 지역 전체로서는 성장률이 저하될 전망이다. 아시아 각국은 금년에 1國을 제외하고 4.5~11%(인플레이 調整된 것)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지만, 내년도는 많은 국가가 이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미 臺灣, 싱가포르, 한국에서는 對美 輸出의

伸張難을 이유로 政府 당국이 금년 下半期의 성장률을 상반기보다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經濟가 감속하는 것은 아니다. 5인의 Economist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次 產品에 의존하는 국가의 성장률은 근소한 차는 있겠지만 금년도 수준을 상회할 예상이다.

각국별 85年度 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다.

○韓國

수출의 40%가 對美로, 美 經濟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政府의 Think tank인 韓國開發研究院은 금년의 GNP 성장률은 7.7%, 85년은 7.4%로 예측하고 있다. 韓國銀行 통계로는 83년의 성장률은 9.5%, 84년 상반기는 8.4%였다.

○싱가폴

83년 GDP의 성장률은 6.4%, 금년 상반기는 9.7%였다. Economist의 예상으로는 금년도 연간 성장률은 8.7~9.5%, 85년은 7~8%로 전망하고 있다.

○臺灣

당국의 試算에 의하면 금년도 성장률은 10%에 달할 것으로 보지만 Economist는 對美 수출의 하락으로 85년은 5.7~5.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香港

財政 당국은 최근, 금년도 GDP의 성장률을 8.1%로 발표, 당초 전망을 대폭 上向 修正하였다. 85년은 5~7%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日本

政府, 민간 Economist는 금년도의 성장률을 최소한 5.3%로 예상하고 있다. 83년은 3.7%였다.

○泰國

정부 당국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6%(83年度는 5.8%)였다. 그러나 이는 낙관적인 숫자로

서 中央銀行은 4.7~5%를 예상하고 있다.

Economist에 의하면 85年度는 6~6.3%가 되리라 한다.

○말레이시아

금년은 제조업, 농업, 石油 생산이 순조로와 6.9%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美 증권회사에 대한 上場과 石油 가격의 안정으로 금년은 4.5~5%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필리핀

아키노 前上院議員 암살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계속되어 금년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5%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中共

Economist의 예상으로는 금년도 GDP의 성장률은 8%, 내년도는 7%로 下回할 전망이다. 中共이 지난 10月, 경제 활동을 조정할 新政策을 발표한 것이 성장을 저하를 예상케한다.

멕시코, IBM 진출로 國論 양분

- 外資法과 債務 상황 주장 등으로 -

거액의 外債를 안고 있는 멕시코에서 세계 최대의 Computer 메이커인 美 IBM의 100% 出資의 子會社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 및 업계의 의견이 대립, 議論은 國會 審議에까지 과급, 國論을 양분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外資 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한 外資法(73年 제정)의 存廢가 걸린 문제로서 진출을 꿈꾸고 있는 日本의 각 기업들도 이번의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IBM의 멕시코 진출 계획은 85年 前半에 당초 資本 660만弗로 Micro Computer 工場을 설립, 89년까지 5년간에 연간 12만 5,000대의 機器를 생산하여 國內 市場의 개척을 꾀하면서 약 5분의 1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밝혀진 후 美 Apple社의 현지법인 등, 이제까지 外資法 태두리 내에서 Micro Computer를 생산해 온 外國 및 國內 기업 28個社는, IBM의 진출은 재래 메이커의 기반을

위협한다고 반대를 하여, 外資法을 Target로 IBM 진출 저지 공동 戰線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업계의 上部 團體, 全國電子工業會가 Micro Computer 産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國內 기업의 보호를 둘러싸고 贊反 양론이 갈리게 된 것을 기회로 하여 政府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하였다.

직접 窓口인 商業省은 認可의 방향에서, 에르나네스 商業相은 國會에서 ① IBM 진출은 行政 지도의 형태로 개별로 처리, ② 外資法의 개정은 필요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企劃豫算省 및 國有財産工業振興省의 내부에는 반대론이 강력해서 지난 11月 27日, 최종 결론은 12月 5日에 개최되는 外資委員會(관계 각료 7명으로 구성)에서 결정짓기로 하였다.

멕시코 外資法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에체베리아 政權 時代에 제정되어 민족 자본의 보호, 육성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900억弗에 달하는 누적 債務를 안고, 석유 수출에 의한 外資 收入 약 150억弗의 대부분을 債務의 利子로 返濟하지 않을 수 없는 멕시코 經濟에는 石油 이외의 수출 부문 강화, 특히 IBM 진출에 의한 Computer 産業의 活性化는 경제 위기 극복에의 제일보로서 불가결하다고 하는 인식도 강하다.

歐洲 Micom 市場 88년에 128억弗

- 英國 등 生産, 販賣 好調 豫상 -

歐洲의 8 Bit Micom 市場은 금후 年率 13%의 페이스로 성장하여 88년까지 末端價格 베이스로 약 128억弗로서, 82년의 71억 7,000만弗로부터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은 西獨의 市場 調査會社 Peter Helt社의 조사에 의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歐洲의 Micom 生産은 88년까지 연간 18.9%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國別로 보면, 西獨 市場은 82년에 48억 7,000만마르크였으나 88년에는 90억 4,000만 마르크에 달할 전망으로 연평균 18.9%의 성장이 예측

된다.

오스트리아 市場은 83년의 17억 6,400만실링에서 연간 13.6%의 비율로 성장해서 88년에는 약 30억 5,600만실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生産은 연간 16.9%로 평균을 상회하는 伸張이 예측된다.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는 연율 9.3%의 市場 형성에 의해 88년의 판매는 134억 7,000만 벨기에 프랑(83년 88억 6,000만프랑)의 전망이며, 生産은 연 평균 29.4%로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페이스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賣上은 年11.5%의 비율로 증가, 83년의 68억 5,000만프랑으로부터 88년에 113억 4,000만프랑으로 증가 生産은 年 19.4%의 비율로 성장할 것이다.

英國의 88년 Micom 販賣는 8억 8,310만 英 파운드로, 83년의 4억 4,340만파운드로부터 4배가 예상되며, 生産은 연간 19.9%로 판매의 18.8%를 상회하는 증가가 예상된다.

스위스 市場의 성장은 연율 13.8%로 88년에 7억 7,480만 스위스프랑(83년에 4억 6,340만 프랑)에 달하고, 生産의 伸張은 18.4%로 예측된다.

中共 電氣通信시스템 近代化

- 98년까지 300만回線 新設 계획 -

中共의 大都市에서는 인구 100명당 평균 電話機 소유대수는 불과 4대라고 하는 현상인데 中共 政府는 현재의 電氣通信시스템을 98년까지 확장, 近代化할 政策에 들어갔다.

주요 도시에서는 100명당 電話機 20대 설치, 전국적으로는 100명당 3대의 설치대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약 3,000만弗의 비용이 투입된다.

현재 世界의 평균 설치대수는 100명당 12대, 工業 先進國에서는 100명당 70대로 높은 보급숫자를 보이고 있다.

中共 政府가 세운 계획으로는 300만 회선을 신설, 그 중 120만회선을 컴퓨터에 의해 콘트롤

한다. 또한 6만本の 장거리 Cable이 부설될 예정이다.

電氣通信의 첨단 기술의 대부분은 수입될 예정이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中共에서는 현재 국내의 通話를 위한 직접 Dial Service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個人 電話機도 적고, 10억의 人口를 안고 있는 中共에서는 公衆電話가 극소수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83년, 美ITT子會社인 벨기에의 Bell Telephone Manufacturing社가 연간 30만回線을 생산하여 10만回線을 中共에 공급하는 2억 5,000만弗에 달하는 契約을 中共 政府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中共 政府와 海外企業 사이에서 체결된 최대의 Joint Venture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계획 외에 中共 내의 장거리 지역을 연결할 衛星 中繼局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 衛星 中繼국은 光Fiber와 컴퓨터화된 S-switchboard를 사용해서 도시간의 상호 通信 서비스를 개량하고,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 Micro 波를 사용한 전기통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美 Home Computer, 賣上 부진 打開

- 價格 인하 · Software 無償으로 販促 강화 등 -

美 Home Computer 메이커들은, 판매계에서 Hardware의 賣上 부진에 실망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賣上 확대에 각종 方案을 전개하고 있다.

Commodore International社와 코레코 인더스트리즈社는 최근 賣上 확대와 동시에 重荷되고 있는 Software의 재고를 流通業界로 넘길 목적으로 販促策을 발표하였다.

Dealer 소식통은 첫째의 賣上 상품으로 Commodore 64의 매상이 작년동기에 비해 30%이상 하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형적인 예가 어느 大玩具店 체인에서 64의 판매대수가 작년의

가을 賣上期에 비교해서 40% 감소하여 금년 11월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도 25~30% 감소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市場 활성화를 위해 Commodore社는 최근 64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Software 2本을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 販促策에 만족하지 않는 Dealer도 많은 실정이다. 그들은 몇 개월도 판매하지 않았던 Software를 서비스해서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Atari社의 800XL 판매가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美 東部 海岸의 大都賣店에서는 800XL의 판매 수량이 1~9월 누계로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가 되고 있으며 10월에는 前年同月對比 8배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Atari社의 Disk Drive도 好調다.

코레코社는 최근 Adam의 판매가를 인하하였다. 同社에서는 현재의 가격 650弗을 유지하고 싶다는 Dealer의 요청도 있지만 175弗 상당의 Software와 周邊機器를 덧붙여서 475弗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Adam 제품을 1,700대나 갖고 있는 中西部の Dealer는 판매한 후 추가 Order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台灣, 16個 High Tech 計劃 추진

- 대규모 集積回路, 素材, Software 등 -

臺灣 經濟部는 86年(85年 7月 1日부터)에 16개 항목의 High Technology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同部에 따르면, 이 16개 프로젝트는 臺灣의 High Tech産業 장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科學 技術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 중에는 대규모 集積回路, 産業 素材, 化學工業의 重要 技術, 컴퓨터 Software, 컴퓨터 周邊機器, 컴퓨터에 의한 設計, 生命學, 精密計器 및 生産性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行政院에 제출하여 認可를 얻어 놓고 있다.

台灣, 國善電子 創立으로 VLSI 生産

- 台灣의 投資 그룹과 Quasel 이 공동 出資 -

台灣의 情報에 의하면, 台灣의 交通銀行을 포함한 투자 그룹은 최근 在美 中共人 科學者들이 창립한 Quasel社와 공동 출자해서 國善電子社를 창설하여 VLSI를 생산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國善社는 Quasel로부터 최첨단 技術 1.5mm CMOS를 도입할 계획이며 제 1期の 투자액은 6억 2,000만 元, 5년 후에는 이것을 40억 元까지 늘릴 것이라 한다.

台灣, 86年度의 製品 國產化率 決定

- 지정한 部品 중 일정 수준을 의무화 -

臺灣 經濟部는 86年度(85年 7月부터)의 電子 製品, 자동차 등의 國產化率을 결정하였다. 臺北 소식에 의하면, 컬러TV와 오토바이가 각각 60%, 90%, VTR은 10% 인상된 55%라고 한다. 3.5톤부터 15톤까지의 버스와 트럭은 33%로 결정하고, 메이커는 同部品이 지정된 15개 항목의 部品 중 3개 항목을 선택해서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輕自動車는 經濟部 지정의 15개 항목의 部品 중 6개를 선택해서 생산하게 된다.

Philips, 日 VTR 輸入 40% 削減策 기대

- EC 委員會에 削減 기대, 報告 -

Philips社는 EC 委員會에, 85년에 日本으로부터의 VTR 輸入 대수가 歐洲 市場에서 예상외로 하락됨에 따라 40% 감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EC와 日本 政府間에서 행해진 VTR 컬러TV·Braun管 등의 輸出自律規制 연장에 관한 교섭에서 同社의 스폭스만이 언급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要求되어서는 안 되고 이 件에 관한 Philips社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P. 39로 계속)

고 2, 3년 동안은 事業에 關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國內貯蓄이 부족하여 차관을 많이 도입하였고, 經濟政策 목표가 貯蓄率 增大에 힘쓰고 있다. 대만의 총 저축율과 가계저축율이 31.4%, 12.7%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2.4%, 12.7%에 그치고 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은행대출율을 확대하고 각종 기금을 마련했지만, 擔保不足으로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고 기금의 미소진 부분이 매우 큰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資金이 아니고 信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제, 친척, 선후배 등 친지의 擔保能力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부가 中小企業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각국별 주요전자제품 생산전망

단위: 천대

| | 한 국 | 대 만 | 홍 콩 | 싱 가 포 르 | 말레이 지 아 |
|----------|--------|-------|--------|---------|---------|
| 컬러 T V | 6,000 | 2,900 | 756 | 3,500 | 960 |
| 흑백 T V | 5,000 | 2,550 | | 200 | |
| V T R | 400 | 160 | | | |
| 라 디 오 | 7,500 | | 4,800 | 9,660 | 6,720 |
| 녹 음 기 | 14,500 | | 22,300 | 13,500 | 2,340 |
| 스 테 레 오 | 1,500 | | 1,400 | 660 | 60 |
| 코 들 리 스폰 | 650 | 1,800 | 1,620 | | |
| 퍼스널컴퓨터 | 1,460 | 330 | | 3,000 | |

..... (P. 20에서 계속)

이전의 協定에서는 日本 메이커는 EC 内の 輸入業者와 小賣店이 84년에는 83년의 480만대보다 많은 630만대를 수입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에 기인해서 VTR의 연간 輸出 대수(완제품 및 半製品)를 395만대로 自律規制하였었다.

그러나 Philips社의 예측에 의하면, 금년의 歐洲 VTR 市場은, 英國에서의 賣上이 83년의 220만대에서 140만~160만대로 하락된 것이 主要因이 되어서 450만대로 저하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저 100만대의 輸入品이 小賣店의 在庫로 남아 있어서 가격 인하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스폭스만은 주장하고 있다.

85年度 日本의 할당량을 도매 수량이 83년의 480만대 레벨로 한다는 豫測에 기초해서 250만대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Philips社의 提案이

을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담보할 필요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홍콩은 자유세계와 중공의 中繼貿易地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중공이 금년에도 한국산 흑백 TV를 대량 수입해가고 있지만, 한국 브랜드로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 홍콩업체가 TV 샷시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약간의 가공을 하여 홍콩산으로 중공에 수출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에 進出하기 위해서는, 社會福祉政策 때문에 세금이 높은 홍콩보다 觀光輸入 등으로 재정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낮아(표준법인세율 15%) 마카오에 현지공장을 세워 TV 샷시와 같은 95% 完製品을 마카오에 수출하고, 마카오 현지공장에서 라벨정도 부착하는 가공을 가하여 마카오 産으로 중공에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카오의 對中共 關係에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선지 우리나라에서 최근 商品展 같은 형식으로 마카오 시장을 연구하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의 전자 밀집 상가를 둘러보고, 이들 상가가 본래 시끄러운 곳이었지만 매우 활발하다는 인상이었다. 이들 국가보다 우리 나라가 技術과 生産面에서 한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추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同社는 西歐 市場 전체에서의 VTR 賣上에 대해서, 84년은 83년의 580만에서 510만대로 저하한 것이 85년에는 61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歐洲의 VTR 메이커에서 대부분의 部品을 현지 조달하고 있는 것은 Philips와 Grundig의 2個社뿐으로, 兩社는 금년부터 V2000에 더하여 VHS의 생산도 개시하였으나 최근 VHS VTR의 Kit를 中共 本土에서 組立해서 판매하는 契約을 체결하였다.

또한 日本 메이커에서는 赤井電機가 프랑스에 年産 10만대의 VTR 組立 工場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英國이 아닌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同社에서는 Audio와 컬러TV의 組立 工場이 가까운 점, 프랑스 國內自治團體와 프랑스 정부의 補助金을 손꼽았다.